



피싱·골드바·노쇼까지… 100억대 사기 조직 검거

제주경찰, 31명 검거 12명 구속… 총책 1명 적색수배
전체 피해자 1341명 중 도민 19명 피해액만 6600만원
경찰 “서로 다른 범죄를 하나의 조직서 점조직 운영”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중고 거래 피싱, 골드바 사기, 노쇼 사기 등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총책이 국내에 관리책을 두고 서로 다른 범죄를 하나의 조직에서 동시에 운영한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조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조직원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아직 검거하지 못한 또 다른 총책 30대 B씨를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 무효화를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 까지 중고거래 피싱·골드바 사기·노쇼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 1341명으로부터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 피해자는 19명 (중고거래 피싱 16명, 골드바 1명, 노쇼 2명)으로, 피해액은 66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작한 허위 정보물품 이미지나 거래 관련 자료를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려 피해자 1091명으로부터 약 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3월부터 40~60대를 대상으로 ‘사우디에서 금광이 발견돼 골드바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

한다’고 속여 서울 등 국내 거주자 109명에게 약 10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행 초기 실제 골드바를 배송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확보했으며, 배송 지연으로 범행을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들은 국내번호를 이용해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010 변작기’를 운영해 국내 소상 공인 141명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여 약 7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에 대해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조직원들을 텔레그램 등으로 연결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게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다른 범죄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특정 조직원이 검거되거나 업무수행이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조직원이 범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점조직 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구조가 피싱 뿐만 아니라 골드바 사기, 노쇼사기 등으로 범행을 계속 확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010 변작기’ 56대를 압수하고, 이들 변작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198개에 대해 모두 차단 조치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비가 내린 16일 제주도 연동의 한 건물목에서 행인들이 햇빛가림막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

“담배공초 때문에…” 부주의 화재 잇따라

폐기물 관련 시설 2곳 피해

담배공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다.

1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6분쯤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인근 영농폐기물 집하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하장 2개동(30㎡)과 영농폐기물 등이 불에 타 1600여 만원 (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날 오후 3시 39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원순환시설 야적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진 사람은 없었지만 재활용 폐지 20t를 태워 220만원 (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경찰청에 ‘검사 보완요구 사건’ 부서 신설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라
이달 하반기 인사서 개편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제주경찰청에도 ‘검사 요구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새로 만들어진다.

경찰청은 이달 실시될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이 이끄는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를 내실있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 조치 요구 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담해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제주청도 현재 수사과 소속 ‘수사심의계’를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수사심의계’와 ‘수사협력계’를 둘 예정이다. 제주청 수사심의과는 과장(총경급)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 규모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 중 수사협력계에는 5명이 배치된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요구사건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하는 한편 경찰서별로 담당자를 두어 검사 요구사건 접수시부터 이행통보시까지 집중 관리해 수사방향·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지원업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사장이 검사 요구 사건 현황을 매일 보고받아 수사를 지휘하고, 시도청장이 매일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감독하는 등 경찰보완수사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소정기자

산후조리원서 RSV 감염 확산

신생아 등 20명 이상 감염
지난 9일 최초 신고 접수

역학조사… 시설 일시 폐쇄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대규모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감염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산후조리원이 RSV 집단 감염으로 지난 11일부터 일시 폐쇄조치됐다. 해당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와 산모, 시설 종사자 등 20명 이상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에서 이처럼 대규모 RSV 감염이 확산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RSV는 기침과 콧물, 미열 등 일반 감기 증상과 유사하며 약 2~8일 간의 잠복기를 갖는다. 재채기 등에서 나오는 비말이나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

하지만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에게 더욱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1~2주 안에

회복할 수 있지만 신생아가 RSV에 감염되면 폐렴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산후조리원이 RSV 감염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것은 지난 9일이다.

제주보건소는 감염자가 2명 이상으로 늘어나자 ‘집단 감염’으로 규정하고, 역학조사 대상을 감염자에서 산후조리원 전체로 확대했다.

또 최초 감염자를 기준으로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이미 퇴소한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역학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 산후조리원에는 지난 11일부터 일시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RSV는 독감이나 코로나처럼 유행하는 질환이 아니고, 한 시설에서 이 정도 규모의 감염 확산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추가 확진 발생 모니터링과 감염 경로 파악, 접촉자 관리, 환기·소독 등 환경 관리 등을 살피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유리기자

80대 복통 환자, 연안구조정으로 긴급 이송

우도에서 복통을 호소한 80대 응급환자가 해경 연안구조정으로 긴급 이송됐다.

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51분쯤 우도에서 80대 여성 A씨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우도보건지소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오전 1시32분쯤 A씨를 성산항으로 이송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인계돼 제주시 소재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레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